

03 옛 물길

목표

역사적 도시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옛 물길을 존중하여 관리한다. 복개된 옛 물길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하여 도시의 역사 환경을 이루는 요소로 활용하며, 옛 물길에 대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한다.

옛 물길은 형상 보존 및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물길의 역사적 특성과 연속성을 존중한다. 현재 복개되어 있는 경우 지하부분에 현존하는 옛 물길도 포함한다.

관리대상

옛 지도 등의 자료를 통하여 발원지 및 지류가 확인 된 옛 물길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복개되어 도로로 쓰이는 경우도 장기적인 복구를 고려하여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옛 물길은 검토를 통하여 현황 여건 및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 옛 물길을 복원(도시형 하천 조성) 또는 옛 물길의 흔적 표시(물길선형 표시 등)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옛 물길 복원(도시형 하천 조성)

옛 물길로서 중요성이 높아 복원의 필요성이 있거나, 현재 물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복원의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지역 개발로 인하여 복원사업이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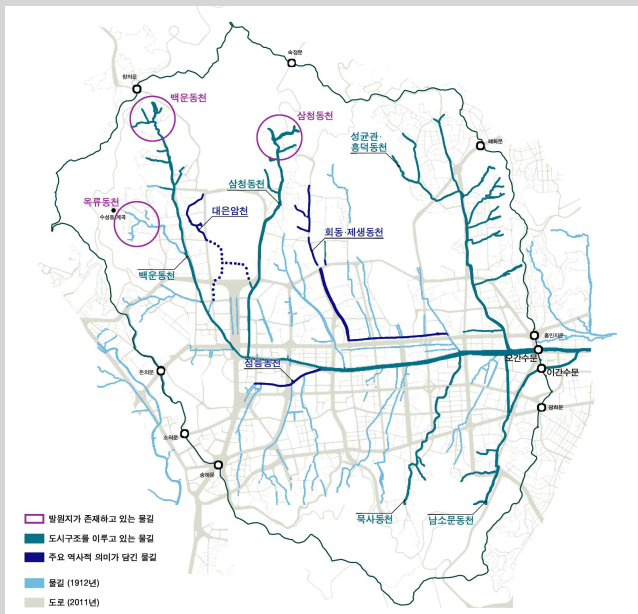
옛 물길 표시

현재 여건상 단기간의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옛 물길 복원이 가능한 경우



삼청동 물길 : 일부 물길, 발원지 등 유지, 복개된 구간 하부 물길 유지



옛 물길 현황도

원칙 (Principles)

1. 현존하는 옛 물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❶ 현존하는 옛 물길을 유지하여 복개 등으로 훼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❷ 발원지부터 청계천으로 합류되는 합수지점까지 옛 물길의 연속성을 존중한다.
- ❸ 자연친화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역사적 물길을 보강한다.
- ❹ 옛 물길의 역사적 의의와 유래, 주변의 역사자원 또는 멸실 유적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2. 훼손된 옛 물길을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이를 활용한다.

- ❶ 복개 등으로 훼손된 옛 물길은 지속적으로 복원·정비한다.
- ❷ 멸실된 수계의 경우, 재현 가능한 옛 물길에 대하여 원형을 최대한 조사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변지역에 역사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조성한다.
- ❸ 단순한 인공적인 수경시설의 조성에서 나아가 옛 물길의 위치, 형상, 역사적 분위기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형상화 방안을 고려한다.

관리지침 (Guideline)

옛 물길 복원 옛 물길을 활용하여 도시형 하천으로 조성

1 옛 물길의 원형을 존중하여 도시형하천으로 조성한다.

- 옛 물길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옛 물길에 대한 정확한 고증 및 확인을 통하여 이를 존중한다.
- 가급적 원래의 위치, 폭원, 형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옛 물길의 역사성과 장소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
- 여건에 따라 옛 물길의 원형보전이 곤란한 경우, 일부 실개천 조성, 바닥수로 조성, 바닥표시 등의 수법을 활용하여 조성한다.



중학천 도시형하천 조성 사례



옛 물길의 복원 및 도시형 하천 조성 예시

2 옛 물길 주변을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접근이 쉬운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한다.

- 옛 물길 주변은 식재 등을 통해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며 조명, 휴게 시설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다.
- 누구나 접근이 쉬운 오픈스페이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옛 물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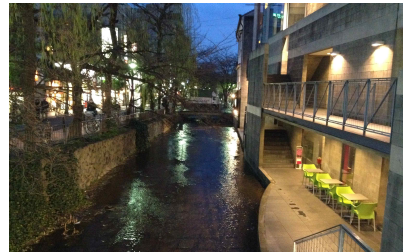
홍덕동천 물길 주변 수경시설, 식재 조성



부산 구덕천 생태하천 조성 사례

3 옛 물길 주변의 건축물을 관리하여 옛 물길과 연계된 활력 있는 가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옛 물길과 면하여 가로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저층부 용도 및 형태 지침을 부여하는 등 활력 있는 가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옛 물길 변으로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가급적 제한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한 쉼터, 탐방로, 작은 박물관 등을 설치한다.



일본 교토 시내에 조성되어 있는 물길



청계천 문화관

옛 물길 표시 옛 물길이 있던 자리임을 표시하여 지역의 역사적 요소로 활용

1 도로 바닥포장을 통해 물길 선형을 표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옛 물길이 흐르던 장소임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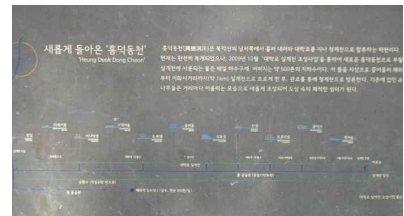
- 발원지가 존재하고 있는 물길은 발원지를 포함하여 옛 물길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도로 바닥포장 시 옛 물길의 폭원과 선형을 최대한 살려 표시하고 빗물 등을 활용하여 옛 물길이 흐르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취리히 골목포장 및 물길조성 사례

2 탐방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 스토리텔링 명소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탐방로 운영을 통해 옛 물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제작,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대학로 흥덕동천 재현 안내판

3 장기적인 복원을 고려하여 현존하는 물길의 훼손을 지양한다.

- 복개되어 있는 물길 중 도로 하부에 물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도로 및 관련 설비시설을 정비, 설치할 때 물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복개된 도로 하부로 흐르는 옛 물길의 현재 모습(삼척동길 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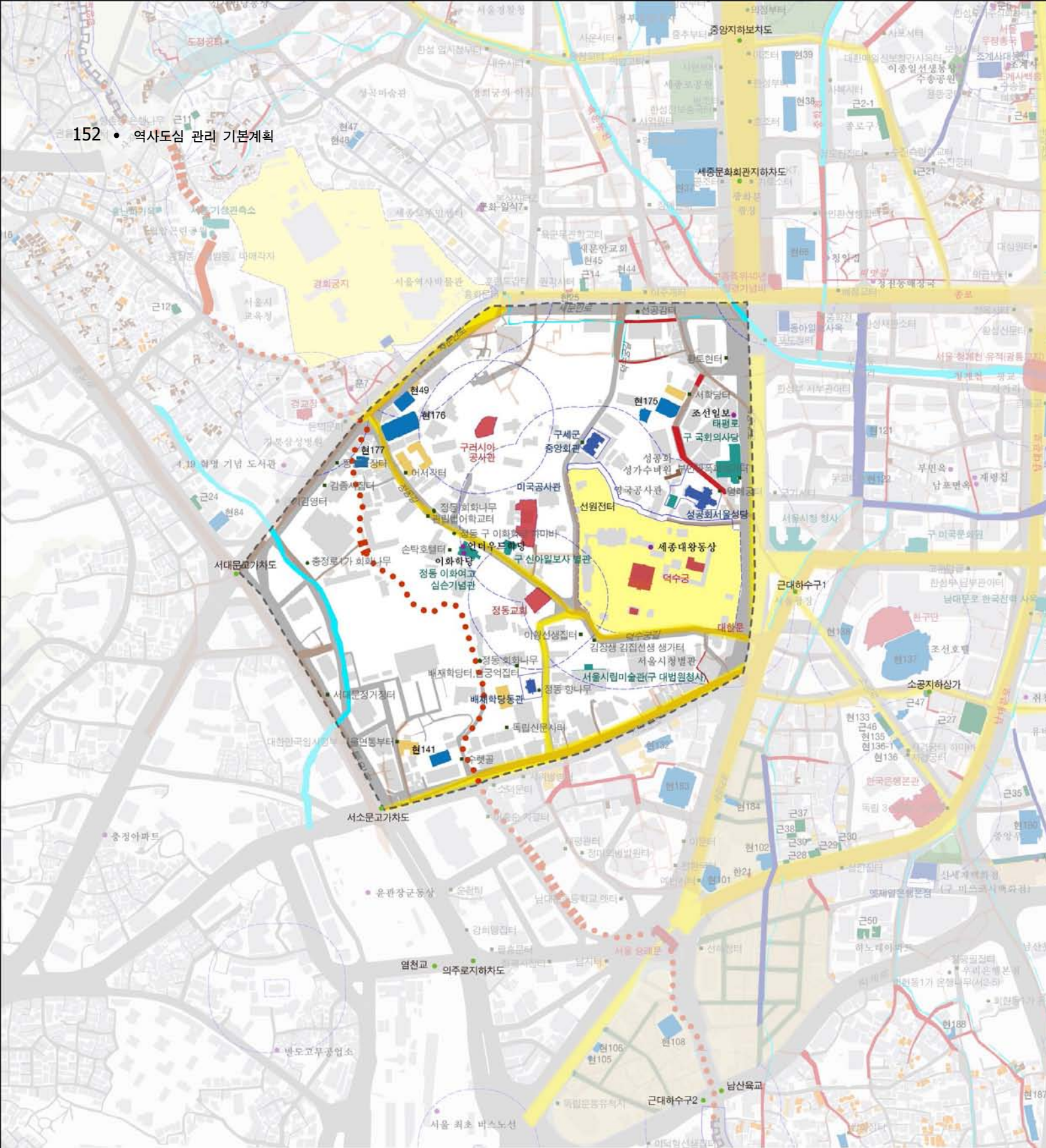
04-C

정동구역 관리지침



정동구역은 북측으로 새문안로, 동측으로는 세종로와 인접하며 서측으로는 통일로, 남측으로는 서소문로와 인접하는 지역이다. 조선시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인 정릉이 현재의 정릉동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곳에 있었던 것에 연유하여 정동이라 하였다. 정동구역은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적 특성을 나타내는 많은 역사문화자원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덕수궁 복원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기 개발된 가로변 고층건축물, 내부의 보행연계 미흡, 서울 한양도성의 단절 등 근대적 도시풍경을 느끼기에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동구역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을 회복하고 현재의 지역특성을 유지·보전해 가기 위해 관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사업 등을 추진 할 경우 본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152 •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도시구조/도시조직

- 한양도성**
- 원형
 - 복구/복원구간
 - 훼손구간
 - 멸실/매장구간

- 주요 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 시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

- 역사적 조직**
- 주요 원형 옛길
 - 원형 가지길
 - 변형 옛길
 - 옛 물길
 - 도시평면

개별자원/잠재요소

- 우수근현대건축물**
- 한옥
 - 일식건축물
 - 문화주택
 - 근대건축물
 - 현대건축물

- 조경요소**
- 보호수, 마애각자
- 잠재요소**
- 생활유산
 - 표석

서울역고가로

0 100 500(m)



서울역역사생태관
경악용산역사생태관

역사문화요소별 관리지침

구분	역사문화자원 명칭 및 위치	관리방향 (관련계획 및 사업)	요소별 가이드라인	
도시 구조 / 도시 조직	원형구간 서울 한양도성 혜손/멸실/매장 구간	- 돈의문터~서소문로 구간(도면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동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한양도성 혜손/멸실구간 관리 검토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순성길(탐방로) 정비 한양도성 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관리 	1. 서울 한양도성
	원형 옛 길 옛 길 변경 옛 길	원형 가지길(도면참조) 종로(돈의문~흥인지문), 서소문로(소의문~서울시청)~을지로 세종대로(태평로, 서울역~청계천), 정동길~덕수궁길, 서소문로11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동 내부 보행체계 정비 및 탐방로 조성 및 주변 건축물 관리 세종대로, 새문안로, 을지로 보행 중심가로 조성 및 주변 건축물 관리 	2. 옛 길
	옛 물길	도면참조		3. 옛 물길
	도시평면	-		4. 도시평면
	역사적 경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망대→정동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망대 주변 경관 관리 	5. 역사적 경관
개별 자원	국가지정문화재	덕수궁(사적 제124호) 구 러시아공사관(사적 제253호) 정동교회(사적 제25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덕수궁 제모습찾기 추진 덕수궁 주변지역 경관관리 	6. 건조물
	시지정문화재	성공회서울성당(유형문화재 제35호) 미국공사관(유형문화재 제132호) 배재학당동관(기념물 제16호) 구세군중앙회관(기념물 제20호)		
	등록문화재	이화여자고등학교 심슨기념관(제3호)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제11호) 구 대법원청사(제237호) 경운궁 양이재(제267호) 구 신아일보사 별관(제402호)		
	근현대 건축자산	현대건축물 현49 한국외환은행(추가) 현141 평안교회 현175 사랑의열매 회관 현176 경향신문 현177 한성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첨 근현대 건축자산 <목록화 작업조사표> 중 관리 및 활용방안에 따라 관리 	
	도시구조물	서대문고가차로, 서소문고가차도		7. 도시구조물 /조경요소
	조경요소	수목, 수목군 암석, 각자 정동 회화나무 충정로1가 회화나무 정동 향나무 정동 구 이화학당 하마비		
비 물리적 잡재 요소	멸실/매장문화재 현재 표석 등 설치	선공감터, 황토현터, 서학당터, 부민관폭파의거터, 명례궁터, 어서각터, 관립범어학교터, 동양극장터, 김중서집터, 손탁호텔터, 서대문정거장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연통부터, 배재학당터, 남궁역집터, 독립신문사터, 이항선생집터, 김장생·김집선생집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문화재는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에 따라 관리 	8. 멸실문화재 /매장문화재
	생활유산	이화학당, 언더우드학당, 조선일보, 세종대왕동상, 수릿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유산은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플랜'에 따라 관리 	9. 생활유산

* 역사문화자원은 표에서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되, 향후 관련 연구 및 검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도록 함.

공공부문 지침

01/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 덕수궁과 함께 대한제국 시기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정동의 역사적 특성을 유지·보전해 나가기 위해 보다 세밀한 건축물 관리방안이 요구되나 관리계획이 부재한 정동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한다.
- 계획 수립 시 정동 일대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 및 경관특성 보전, 서울 한양도성 유구 훼손/매장 구간에 대한 관리, 내부 보행체계 구축 및 공공공간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내용을 검토한다.
- 정비사업 완료구간 경계부에 위치한 주차장 등 민간 부지 및 도로 등 공공부지에 대해 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민관협력형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02/ 덕수궁 제 모습 찾기 추진

- 문화재청에서 진행 중인 구 미대사관부지(옛 경기여고 터) 내 선원전 복원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덕수궁의 주요전각과 중화전 및 돈덕전 권역의 복원(1904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기준) 및 덕수궁과 경희궁을 연결하는 운교(구름다리) 복원을 검토한다.

03/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순성길(탐방로) 정비

- 한양도성과 관련된 관리기준 마련 및 공공사업 추진 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수립 중)’에 따르도록 한다.
- 한양도성이 훼손되거나 매장/멸실된 구간은 한양도성의 연속성, 향후 유구발견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양도성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며,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한양도성 성벽유구가 확인된 구간 중 공공(학교, 교회 등)이 점유하는 구간은 한양도성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MOU를 체결하여 개방을 유도한다.
- 한양도성 단절구간은 성곽 원위치 확인 및 하부 흔적표시를 통해 연계성을 회복한다.
- 공공사업 추진 시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유적과 한양도성을 연결하는 바닥표시,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탐방로를 조성하며, 탐방로 중 창덕여중과 이화여고 구간은 MOU 체결 후 단계별 개방을 검토한다.

04/ 공공공간 인지성 및 접근성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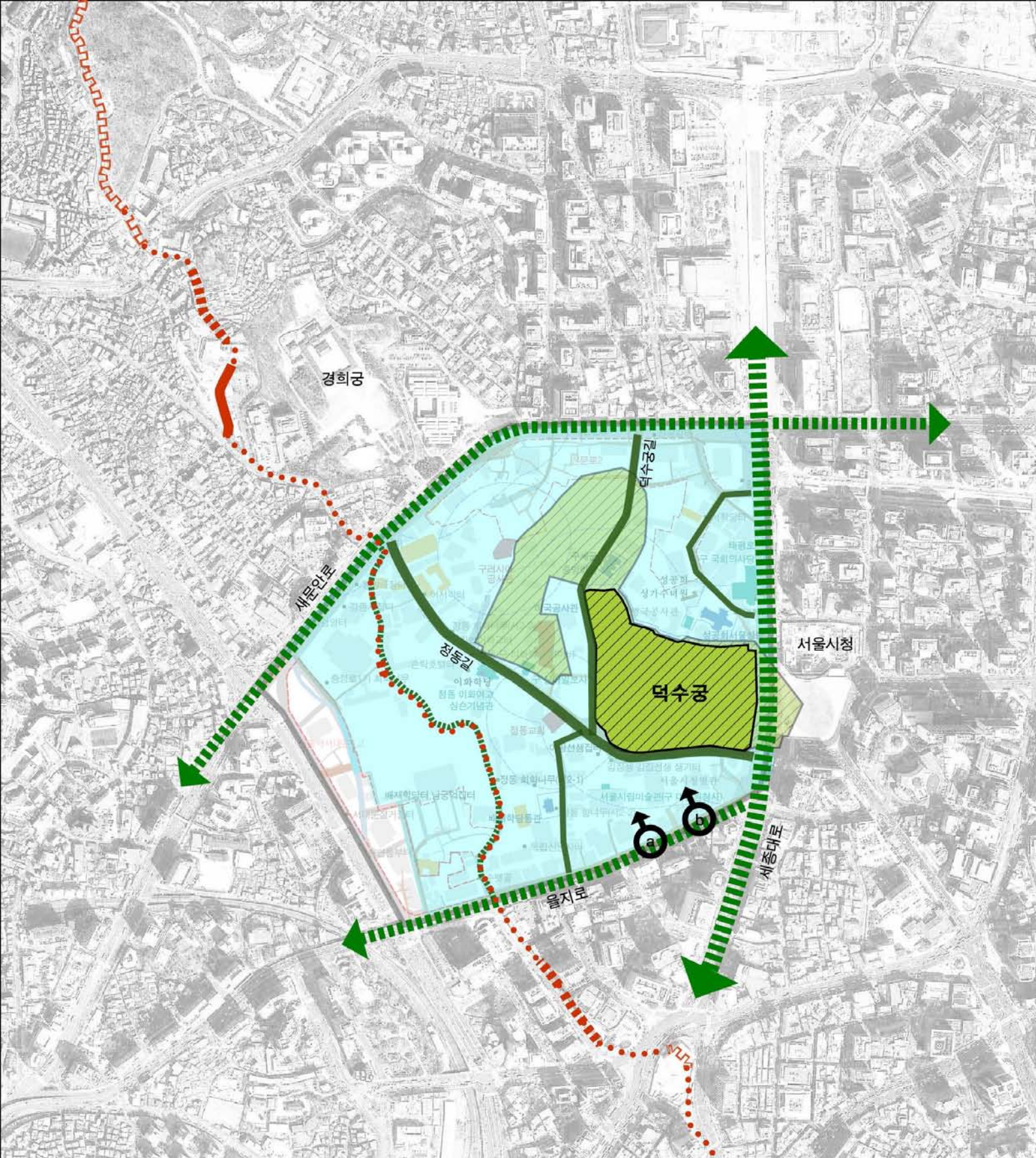
- 서울시청 별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공공공간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진입부 환경을 개선한다.
- 방문객으로 하여금 진입부의 가시성 및 인지성 확보를 위한 안내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신한은행 옆 진입부 → 서울시청 별관
 국민은행 옆 진입부 → 서울시립미술관

05/ 정동 내부 보행체계 정비 및 탐방로 조성

- 대한문입구~정동사거리~돈의문터를 잇는 덕수궁길과 정동길을 근대적 풍취가 살아있는 보행중심 탐방로로 조성한다. 구 러시아공사관 등 주변 역사자원과 새문안로에 의해 단절된 한양도성과 소실된 돈의문에 대한 인지성 강화 및 주변 명소와의 보행 연계성을 확립하여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탐방로로 조성하며, 보행자 우선의 보차혼용도로로 운영한다.
- 새문안로와 서소문로를 잇는 남북축 보행로로서 덕수궁길을 재정비한다. 고즈넉한 사색의 길로 조성하며, 구세군 중앙회관, 배제학당 동관, 성공회 서울성당 등 주변자원으로의 접근성 개선 및 인지성 강화를 위해 내부 보행로를 구축하고, 바닥표식 설치 및 안내체계 등을 정비한다.
- 영국대사관 이전 시 장기적으로 구세군중앙회관~영국대사관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연결을 검토한다.

06/ 세종대로, 새문안로, 을지로 보행중심가로 조성

- 세종대로, 새문안로는 차로폭을 축소하고 보도폭을 확장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을지로는 보도 상 지장물 관리를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횡단보도 확충, 보도 포장개선, 역사적 가로와 조화로운 디자인의 가로시설물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며, 가로변 녹화 등을 통해 복합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 역사가로로서 상징성 강화를 위해 가로의 역사적 사건, 의미, 인물 등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안내정보를 제공한다.



- | | |
|--|---|
| <p>01/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p> <p>02/  덕수궁 제 모습 찾기 추진
 덕수궁 옛 영역 경계</p> <p>03/  한양도성 훼손구간
 한양도성 매장/멸실구간
 한양도성 순성길(탐방로) 정비</p> | <p>04/  공공공간 인지도 및 접근성개선</p> <p>05/  정동 내부 보행체계 정비 및 탐방로 조성</p> <p>06/  세종대로, 새문안로, 을지로 보행중심가로 조성</p> |
|--|---|



민간부문 관리지침

01/ 한양도성 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관리

- 창덕여중과 이화여고 등 한양도성이 훼손되거나 매장/멸실된 구간은 현재 남아있는 기단부, 석축 등 훼손을 지양하고, 개발 시 반드시 발굴을 실시한다. 발굴 시 유적이 확인될 경우 보존조치를 강구한다.
- 한양도성 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관리기준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수립 중)’의 기준 및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2009)’ 상 [서울성곽축 경관중점설계지침]의 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준용한다.
- 지형: 한양도성의 원지형 및 구릉지 경관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절성토 제어(토지형질변경제한)
- 대지규모: 합필 등을 통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개발규모 계획 수립.
- 높이: 한양도성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변으로부터 성곽의 추정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설정.
- 배치: 한양도성으로의 접근성 향상 및 통경축 확보, 탐방로 조성을 고려하여 한양도성 원위치 주변으로 충분한 공지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계획 수립.
- 전면공지 내 한양도성 원위치에 흔적 표시 및 안내 표지 설치.

02/ 덕수궁 주변지역 경관관리

- 문화재 경관관리 검토구역 내 건축 시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2009)’ 상 [역사특성거점 경관중점설계지침]의 기준과 다음 기준을 준용하며, 경관시물레이션을 통해 문화재로의 영향을 검토한다.
- 재료 및 색채 : 문화재와 조화로운 자연재료(벽돌, 전돌, 목재 등)를 사용하고, 색채는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의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 범위의 색상 내에서 사용
- 야간경관 : 원색계열의 야간조명 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 : 옥상 광고물 설치 금지

03/ 정동길, 덕수궁길 탐방로 주변 건축물 관리

- 근대적 풍취가 살아있는 지역특성을 유지·강화해 나가기 위해 다음의 용도, 형태, 재료 및 색채 기준을 적용한다.
- 용도: 1층 보행저해 및 경관위해 용도 등 불허, 저층부 가로친화적 상업용도 유도
- 형태 및 외관: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및 색채를 이용한 시각적 분절을 통해 3층이하 저층부 분리를 유도하고, 근대적 경관특성 유지를 위해 보다 세밀한 특화가로지침 수립.
- 재료 및 색채: 자연재료의 사용(벽돌, 전돌, 목재 등) 및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역사문화경관 권장 색채 적용

04/ 서울시 서소문청사 내 전망대 조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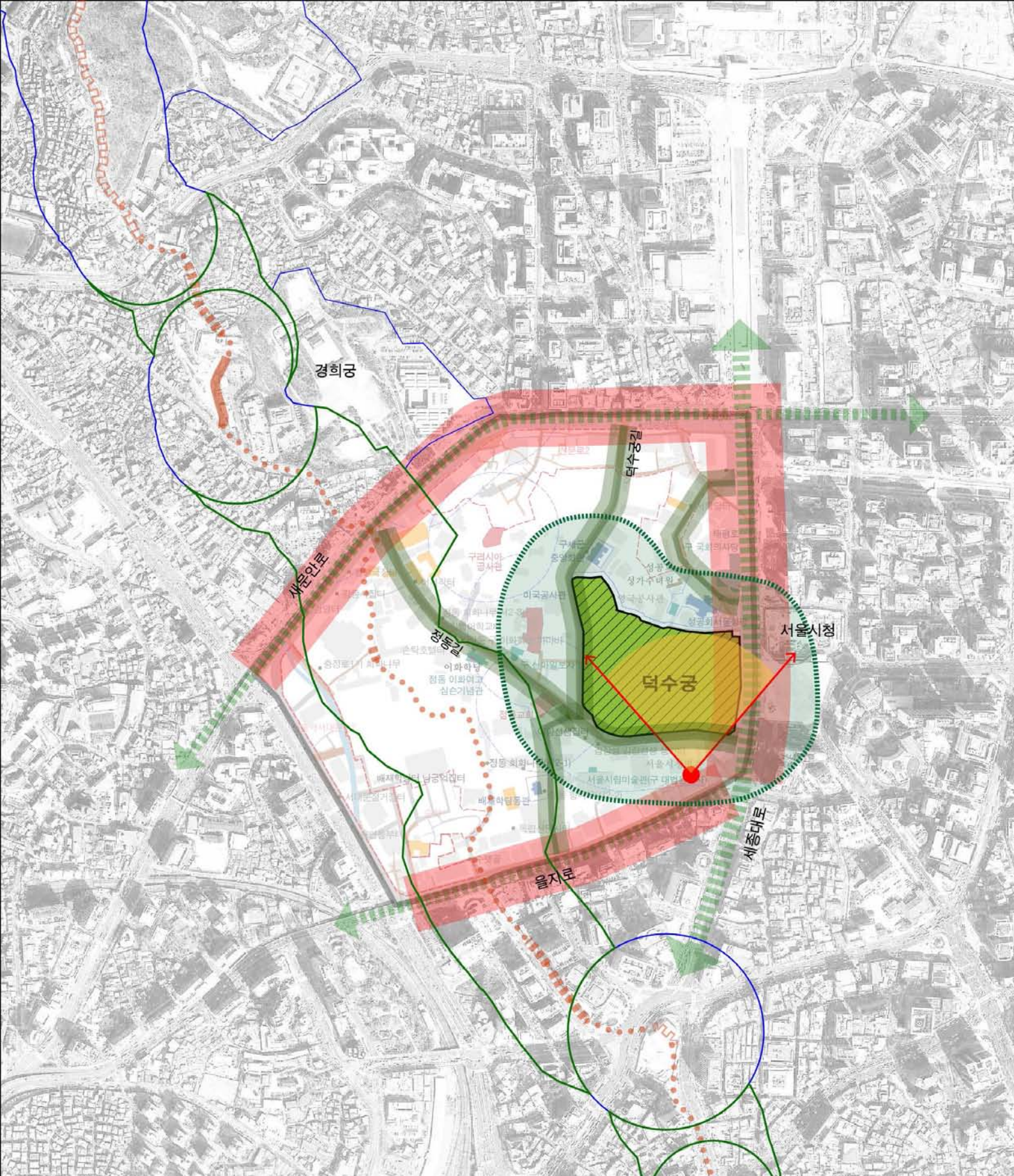
- 덕수궁과 조화로운 경관 관리를 위해 건축물 색채 및 야간경관, 옥외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색채: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 적용
- 야간경관: 원색계열의 야간조명 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 옥상 광고물 설치 금지.

05/ 세종대로 주변 건축물 관리

- 광화문 ~ 서울시청 ~ 승례문 ~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으로의 상징성을 유지하고 질서정연한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종대로 가로변 건축물을 관리한다.
- 배치: 도로경계선에서 3m후퇴(중심지미관미구 건축선 후퇴)
- 용도: 1층 보행저해 및 경관위해 용도 불허, 저층부 가로친화적 상업용도 유도
- 재료 및 색채: 자연재료의 사용(벽돌, 전돌, 목재 등) 및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 적용
- 형태 및 외관: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및 색채를 이용한 시각적 분절을 통해 3층이하 저층부 분리 유도.
- 옥외광고물: 수량, 규모, 색채 기준 구체화.

06/ 새문안로, 을지로 주변 건축물 관리

- 주요 역사가로인 새문안로와 을지로 보행중심가로 조성과 연계하여 가로변 건축물을 관리한다.
- 배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 한계선 계획 수립.
- 용도: 1층 보행저해 및 경관위해 용도 불허, 저층부 가로친화적 상업용도 유도
- 재료 및 색채: 자연재료의 사용(벽돌, 전돌, 목재 등) 및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2008)’ 역사문화경관 권장색채 적용
- 형태 및 외관: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및 색채를 이용한 시각적 분절을 통해 3층이하 저층부 분리 유도.
- 개방형 입면: 저층부 개방형 입면 조성.
- 옥외광고물: 수량, 규모, 색채 기준 구체화.



- | | |
|---|---|
| <p>01/  한양도성 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관리</p> <p>02/  덕수궁 주변지역 경관관리</p> <p>03/  정동길, 덕수궁길 탐방로 주변 건축물 관리</p> | <p>04/  서울시 서소문청사 내 전망대 조망확보</p> <p>05/  세종대로 주변 건축물 관리</p> <p>06/  세운안로, 을지로 주변 건축물 관리</p> |
|---|---|

